

#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산업의 진로

국내석유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화이다. 내수시장  
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해  
석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외부적 변화에 따른  
내부문제도 쉽게 풀어갈  
방법이 많아질 것이다.



李會晷  
〈에너지경제연구원장〉

**90년대** 들어 세계의 석유시장은 개방화, 경쟁화 그리고 환  
경규제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파고를  
맞고 있다. 이러한 파고의 물결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석유산업이 새로운 물결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에 따라 도약과 쇠퇴의 갈림길이 정해질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세계는 과거 명분을 중시하는 이념외교  
우선주의에서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의 전환  
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블럭화와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진전되  
고 있다. 석유부문에서도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강대국들의 개방압력  
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에게는 상류부문을, 소비국에게는  
정제업과 석유유통업에 대한 개방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압력은 필연적으로 경쟁화를 유발시킨다. 이미 국내  
정제부문은 경쟁화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본격적인 경쟁시대의 돌  
입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석유산업의 경쟁은 가격경쟁, 품질경  
쟁, 판매서비스 경쟁뿐만 아니라 상표경쟁과 같은 이미지 경쟁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경쟁력 제고가 석유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것이  
며, 구미에서나 있었던 것으로 알았던 석유산업의 기업합병, 기업  
매각매입같은 상황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화의 과정에서 시장 자유화와 규제정책 사이  
에 많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내 석유산업에는 이미 가격 자유화가  
확대되는 중이며, 정제업의 시장진입 자유화나 석유 수출입제한 완  
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일정도 수립중이다. 그러나 자본 집약적이  
고 공공성이 높은 에너지산업에서는 자유화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국민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등식으로 성립되지는 않  
는다. 과거와 같은 행정관리 위주의 규제와 보호위주의 정책도 문제  
지만, 급격한 자유화 조치는 오히려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성도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도 큰 것이다.  
앞으로 자유화 속도와 적정 수준의 규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며, 특히 석유산업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환경문제의 부각은 에너지이슈를 공급측면에서 소비측면으로 전  
환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에너지절약이 에너지의  
공급불안 보다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환경  
문제와 에너지의 절약, 이용효율향상, 수요관리가 같은 범주에서

# 2000년대를 향한 박적저략 N O L L L L L

다루어 지고 있고, 이를 위한 신기술개발경쟁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NIMBY 현상을 만연케 하였고, 이것이 에너지부문에는 발전소나 정유공장 등의 입지선정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통상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후진국간의 정치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떠나서는 어떠한 에너지정책이나 경영전략도 수립되기 어려운 상태에 와있는 것이다.

국내의 환경규제의 강화는 석유산업에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구조개선까지도 요구할 지 모른다. 우선,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세나 환경세는 그 결정여하에 따라 석유와 타연료간의 경쟁관계가 재편되어 세계 석유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탈황설비의 투자여부는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사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Clean Air Act에 따라 10월부터 적용될 석유제품의 환경기준 강화를 앞두고 벌써부터 독립계 소규모 정유사의 폐쇄가 속출하는 반면, 그동안 탈황설비를 늘려왔던 주요 메이저들은 제품판매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분기 수익이 5년만에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것은 개방 압력이 높아가는 가운데 경쟁화를 지향하려는 우리의 석유산업에서 환경문제가 곧,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방화, 경쟁화와 환경규제의 강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서 국내석유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최선의 대응방법은 우리 석유산업의 국제화이다. 내수시장 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해 석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기존의 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적 변화에 따른 내부문제도 쉽게 풀어갈 방법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국제화를 지향함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이 경쟁구조로 개편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어야 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정당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석유산업이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국내 석유산업에서 상류부문이 확보되고 상·하류부문의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류부문이 결여된 상태에

우리의 석유산업이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유부문이 수출산업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유회사들이 국내에서 정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 정제설비를 갖추어 현지에서 직접 제3국에 수출하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석유제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정유산업이  
국제화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UNDP 주재하에 개발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유역에  
정제센터의 건립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는 원유의 공급불안과 유가상승의 위험을 그대로 전가받게 된다. 이는 곧, 국내 석유산업이 대외 개방에 따라 벌이게 될 외국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에서도 크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국제적 기업으로의 도약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해외 유전개발 전략은 보다 적극적이며 차원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내 원유의 자급도 제고라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가 생산한 원유를 제삼국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유전개발 목표를 상향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의 해외유전개발 정책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추진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감이 있다. 2000년의 자주 개발 원유도입 비율을 10%로 설정하였으나, 그것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투자액이 산정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도 공표된 바 없다. 이러한 원인은 유전개발에 대한 우리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발실패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물론 정부나 업계의 이해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하겠다. 해외유전개발은 그동안 그 당위성으로 인정되었던 자주 개발 원유도입에 의한 에너지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하류 수직결합에 의한 우리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국제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해외유전개발이 부대적으로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하부구조 사업이 개발참여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단순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 효과적인 진출방법과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짜내야만 하겠다.

우리의 석유산업이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정유 부문이 수출산업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유회사들이 국내에서 정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 정유설비를 갖추어 현지에서 직접 제 삼국에 수출하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부문이 국제화되면 국내 석유수급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산유국에 정제설비를 건설한다든지, 산유국과의 합작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유공급의 불안도 그만큼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상·하류 부문의 수직결합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은 많은 정치·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유산업이 국제화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

다. 중국은 약 320만b/d의 정제규모를 갖고는 있지만,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정제설비를 크게 확장해야만 할 입장이다. 러시아는 구 소련 석유생산량의 90%를 생산하지만 정작 정제설비는 70%에 불과하다. 현재 정치적 혼란으로 석유생산이나 수요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시장 잠재력도 거대하다. 그밖에 석유소비 대국인 일본을 포함했을때 21세기에 들어서 동북아 석유시장에는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동북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경질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고도화 설비가 크게 부족하고 투자도 부진한 상태다. 2000년에 이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로 약 300만b/d이상의 석유제품이 역외에서 수입될 전망이다.

아시아 석유제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정유산업이 국제화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UNDP 주재하에 개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유역에 정제센터의 건립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볼때 두만강유역은 석유매장량이 큰 극동 시베리아와 산유국이면서 소비국인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동북아 석유교역의 중간 유통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장래에 두만강유역 개발구상이 실행에 옮겨 질때는 이 지역은 교역과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달될 것이기 때문에 석유교역 센터로서 갖추어야할 항만과 도로, 통신 등의 하부구조도 정비될 것이다. 또한 두만강 유역의 정제센터가 국제적인 규모로 건설된다면 제품판매 시장을 동남아시아까지 용이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석유산업이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밖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다. 먼저 국제적인 기업이 되려면 경영행태나 감각도 국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화시대에 맞서 불확실성에 도전하려는 기업가적인 정신과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사고도 요구된다. 동시에 세계 시장정보의 습득력을 크게 제고시켜야 하겠다. 상류부문이나 하류부문이나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된다. 개방화, 경쟁화의 시대에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태도도 규제와 지원정책 위주의 시대와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 석유산업의 역사와 규모로 볼때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은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과 리더쉽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각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공유해야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석유산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망의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석유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입 부담만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전략 상품으로 바꿀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만 국내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석유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입부담만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전략상품으로 바꿀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만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